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사고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무한한 참본성을 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부정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신을 늘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Try, try, try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원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왜 행복한지 생각해보세요. 매일 참된 행복을 찾고 연습하세요. 애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㉓ 요르단 암만과 페트라

희망이란 길을 찾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비행기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도착해 숙소로 향했다. 언덕위에 자리한 호텔에서 바라다보는 밤하늘의 별빛들이 모두 지상으로 내려와 야경을 이루는 듯,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다음날 새벽 우린 요르단이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디애나 존스 - 성배의 성전' 의 무대로 유명한 페트라 유적지로 향한다. 가는 길은 가도 가도 끝없는 황량한 사막과 불모지이다. 이따금 몽롱한 가운데 푸른 호수가 보이지만 그것은 허망한 신기루일 따름이다. 얼마나 많은 대상들과 수도자들이 헛된 신기루의 유혹에 이끌려 그르쳐 갔는지 모른다.

가는 길에 어느 동네에 들려 요르단인들이 자주 먹는 화덕에 구운 빵을 사서 대중과 함께 먹었다. 예수의 '오병이어(五餠二魚)' 의 기적 속에 나오는 바로 그 빵일 것이다. 밥 혹은 빵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리라. 빵이 예수의 몸이라면, 밥은 곧 부처(佛)이자 진리의 법(法)이라고 생각한다.

산꼭대기의 전망대에 올라 사방을 조망해본다. 요르단의 작은 '그랜드 캐니언' 으로 불리는 아르논 계곡(현지어로 와드무집)이다. 모세가 '출애굽기' 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위해 마지막으로 건넌 곳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천화(遷化)하고 만다. 마치 그때의 그 모습인양 돌연 바람이 일어나 계곡을 넘나들며 내양 볼을 스치며 지나간다. 이것은 실로 바람의 울부짖는 처절한 절규이자, 고통과 번뇌와 희열의 드라마이자 서사시이며 또한 교향곡을 연상케 한다.

드디어 페트라(Petra) 유적지에 도착해 간단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근처를 돌아보니 어린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 그리고 곱고 아름다운 마음씨가 여실히 느껴진다. 특히 그 맑고 푸른 눈동자는 바다나 호수와 같아 첨벙 뛰어들어 그 속에 빠져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예쁜 아이들의 미래에 자유와 평화가 항상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해마지 않는다.

페트라는 옛 나마테아 왕국의 수도로 향료교역으로의 중심지이자 아라비아 해안의 대상무역로의 중심지로 번성한 도시이다. 이후 몰락해 역사속에 사라졌다가 1812년 스위스의 요한 루트비히 부르크하르트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영국의 시인인 존 버건 신부는 이 도시를 가리켜 "영원한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처럼 붉은 도시"라고 노래할 정도였다.

10여 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적에 게스트 하우스에서 한국인 창수 씨가 적어 놓은 여행후기를 보았다. 세계문화유산인 까닭에 입장료가 4만원 정도로 비싼 까닭에 몰래 들어가는 도둑관람의 노하우를 적어놓은 것이다.

우선 새벽 5시 이전에 담을 타 넘어서 진입해 손전등을 켜고 사암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가 유적이 나타나면 근처 동굴로 숨어든다. 그리고



페트라 유적의 하이라이트인 '일 카즈네 신전' 스케치.

일 카즈네 신전, 페트라의 '백미'
웅장함 매료… 여러 사색이 절로
수행자, 그 길서 최초 · 최고 돼야

동굴에서 MP3 음악을 들으며 버티다가 관광객들의 소리가 들리면 슬그머니 나가서 합류하는 것이다. 만약 현지 베르베르족에게 걸리면 대응전략까지 적어 놓았다. 절대 나라 망신이니 한국인이라고 하지 말고 일본인이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의 첫 페트라 여행은 일종의 창수투어가 되어 버렸다.

이번에는 9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천천히 걸으며 여유롭고 당당하게 관람을 시작하였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은 턱없이 싸다는 느낌이다. 민족문화의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참을 가다보면 깎아질 듯 한 사암 절벽이 양옆에 기립한 채 우리 일행을 맞는다. 마치 이백의 '촉도난(蜀道難)' 이란 명시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사암의 절벽사이로 하늘이 손바닥만 하고 절벽에는 동굴집이 위태롭게 걸려있다.

그렇게 구절양장의 좁은 길을 돌고 돌면 갑자기 페트라 유적의 백미인 일 카즈네 신전이 신비롭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천지개벽 하듯이 나타난다. 장밋빛 사암을 정교하게 깎아 조성한 이 신전은 높이 40m, 너비 28m에 이르는 천의무봉의 솜씨이다. 그 앞에 자리하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힌 채 그저 감탄과 경외를 금할 수 없다.

몇 년 전 방송된 '미생(未生)' 이란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알 카즈네 신전을 배경으로 촛불을 밝히고 주인공이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때 나래이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중국의 대문호인 루쉰(魯迅)의 소설 '고향' 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단언컨대, 수행자는 삶과 수행의 그 길 위에서 최초이자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

페트라 유적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사막의 지평선 사이로 태양이 장엄하게 진다. 그리고 연이어 무수한 별빛의 향연이 이어진다. 사막의 길잡이는 북극성이란 별빛이다. 우리시대의 양심인 신영복 선생이 서여 민영규 선생의 '예루살렘 입성기' 중에서 인용한 '지남철(指南鐵)' 이란 글귀가 생각난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 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남철처럼 강렬한 촉수(觸手)를 간직하고는 냉철한 이성과 따스한 감성으로써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향해 더불어 함께해야만 한다. 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며 최초이자 최고의 길을 이끌어야 한다.

〈조계종 前 교육부장〉

